

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제 목	2021학년도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	일시	2021.1.28.(금) 13:00-15:00
		장소	세종캠퍼스 A동 208호
안 건	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반영요구 사안 전달		
주요내용	<p>위원장이 총인원 9명 중 7명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</p> <p>- (서울)총학생회장 : 세종캠퍼스와 서울캠퍼스를 분리하여 결산을 요구함.</p> <p>- 간사 : 재무팀 직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학교회계가 원가회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캠퍼스를 구분하여 정확한 원가산출이 어렵다. 차등등록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열별, 학과별로 원가구분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.</p> <p>- (세종)과기대학생회장 : 차등등록금 산정 근거에 대한 요청에 대한 답변도 아직 받지 못하였다.</p> <p>- 간사 : 차등등록금의 산정근거 또한 원가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. 198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'대학단위교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'를 통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1인당 교육비는 계열별로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에 제출하였고 당시 문교부가 대학등록금을 인문사회계, 이공계, 예체능계, 의약계 등 4개 계열로 차등화 했다. 현재 계열별 차등등록금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흥익대학교 자체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계열별 등록금 원가 산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</p> <p>- (세종)과기대학생회장 : 차등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간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원확보율도 다른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차등등록금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. 조형대와 과기대는 이미 포화되어 다른 학과 공간을 빌려쓰는 경우도 많고 졸업준비에 상당부분 개인 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.</p> <p>- 위원장 : 공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공간비용채산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. 공간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학과 교수님들뿐 아니라 학생들의 협조도 필요하다.</p> <p>- (서울)총학생회장 : 차등등록금에 대한 사유나 산정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, 학과별 실험실습비 내역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</p>		

고 생각한다. 2020학년도 4차 등심위에서 실험실습비 열람요청 시 공개해 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, 파일로 전달을 해주지 않고 눈으로 열람하도록 해주거나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 학과도 있었다. 학과별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를 원한다.

- **기획관리처장** : 학과별로 학생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,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피드백이 한 건도 없었다.

- **(세종)과기대학생회장** : 실험실습비 내역을 열람하면서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, 실습조교가 지출 내역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.

- **총무팀장** : 실험실습비의 집행 시기에 따라 당시 조교가 아니었던 경우라면 내용을 모를 수 있지만, 해당 내역 증빙 등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. 또한 실험실습비는 학과별로 예정된 예산만큼 모두 사용되도록 장려되고 있다.

- **(서울)총학생회장** : 매번 요청 드리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실험실습비의 공개요청 시 원활한 공개를 요청드린다.

- **(세종)과기대학생회장** : 졸업준비금 및 전시회의 학생부담과 관련하여 혹시 혁신사업의 재원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.

- **기획관리처장** : 혁신사업에서도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하고, 또한 이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(불확실한 경우 재단 문의결과 긍정적인 응답을 받으면) 혁신사업단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, 예산 편성 전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.

- **(세종)과기대학생회장** : 내부 논의 후 2월말 이전에 알려주겠다고 함.

- **(서울)총학생회장** : 전임교원을 80%달성 목표 제시에 대한 학교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함.

- **기획관리처장** : 교무처에서 답변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. 교수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수채용은 신중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 평가에 의해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. 학교입장에서도 교원확보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.

- (서울)총학생회장 :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을 전임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. 이에 대해서 양질의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원확보에 대해 신경써주시기 바란다.

- (세종)과기대학생회장 : 세종캠퍼스 자율전공의 경우 조형대 집입인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설과목 대비 교원 수가 부족하여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- 기획관리처장 : 학교에서도 전임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과에도 채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.

- (서울)총학생회장 : 교육비환원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항상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.

- 간사 : 교육비환원율은 총교육비/등록금수입 으로 계산된다. 총교육비에는 교직원에게 돌아가는 보수도 포함되는데 병원이 있는 대학의 경우 병원수입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대학에 비해 교육비 환원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. 산학협력단 또한 타학교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해당 지표에 대한 계산을 수치만 놓고 비교하기엔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.

- 위원장 :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이유로 교육비 환원율이 타학교보다 수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수치를 떠나서, 학생들이 직접 받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. 등록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교육혜택, 경제적혜택 등을 따져 보시길 바란다.

- 기획관리처장 : 산학협력단 규모는 최근 1~2년간 점진적으로 증진하고 있다. 메이커스페이스 등 여러 가지 산학협력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.

- (서울)경영대학생회장 : 총장직선제를 추진하고 후보추천위원회 내 학생대표위원의 참여 비율을 늘리자는 요구에 대한 학교 의견을 듣고 싶다.

- 위원장 :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- (서울)총학생회장 : 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은 수입총액대비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. 법인부담금을 매년 낮게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

하고 싶다.

- **간사** : 법인부담금 중 법정부담금의 경우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이 그러할 여력이 없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더 낮은 비율을 부담한다. 홍익대학교도 법인이 전액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부족분을 교비회계로 충당하고 있다.

- **(서울)총학생회장** : 사립학교법에 의해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교육부 장관은 학교 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, 학교 경영기관이 어떠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는 자료를 요청한다.

- **간사** : 법인에 알아보겠다고 함.

- **(세종)과기대학생회장** : 현재 A동에만 있는 선별진료소를 확충하여 학생 동선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함.

- **기획관리처장** :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설치 된 것인데, 만약 방학기간 중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말씀해주기를 바란다.

- **(서울)경영대학생회장** : 교내 미사용 공간조사를 진행하고,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요청함. 동시에 아트 앤 디자인밸리 등 신축건물 등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공개를 요구함. 기자재의 수리도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, 수리 불가능한 물품은 주기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함.

- **위원장** : 교학협의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하도록 함.

- **총무팀장** : 비품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학기에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, 학교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폐기가 자유롭지 않다.

- **(세종)조형대학생회장** : 코로나로 인해 재택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도비 라이선스 등을 학생들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함.

- **기획관리처장** :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은 해드릴 수 없다. 학과교수님들이 수업 목적으로 학교에 해당 내용을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- (세종)조형대학생회장 : 세종관 앞 다목적 복합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획에 대해 질의함.

- 기획관리처장 : 그 부근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이 나오고 나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.

- (서울)총학생회장 : 비대면 수업과정에서 발생한 교육권 침해에 따른 보상책과, 비대면 수업 환경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 달라고 함. 지난학기 4%의 수업료 감면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, 올해도 감면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함.

- 위원장 : 국가장학금과 합쳐지면 실질적으로 10% 정도의 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정해지게 된 것이고, 올해의 경우에는 아직 보상의 단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2021학년도를 어떻게 성실하게 준비할 것인지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함. 학교가 준비가 미흡해서 다시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 때 다시 보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함.

- (세종)조형대학생회장 :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방식이나 공지사항에 대한 신속성이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

- 기획관리처장 :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늦어졌던 부분은 있지만 상황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왔기 때문에 해당 문제점은 개선될 것이라고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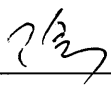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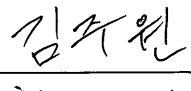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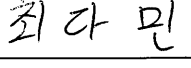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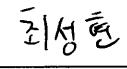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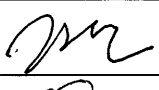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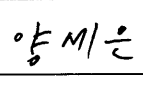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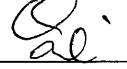
- (서울)총학생회장 : 타대학과 같이 집중이수제도 등을 도입하여 비대면 수업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을 질의함.

- 위원장 :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이후에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논의해 보자고 함.

- (서울)총학생회장 : 비대면 수업방식이나 시험방식, 평가방식 등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함.

- 위원장 : 학점완화 등이 능사는 아니며, 학교에서 항상 다른 학교들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함.

다음 회의는 2월 4일 서울에서 진행하고자 하고 폐회를 선언함.

	직위	성명	서명	직위	성명	서명
참석위원	위원장	음 선 필		위원	김 주 원	
	위원	차 재 연		위원	최 다 민	
	위원	김 주 연		위원	최 성 현	
	위원	김 희 산		위원	양 세 은	
	위원	최 형 배				
	참석현황	참석대상	9명	참석	7명	불참
작성자	재무팀 간사 박병혁		작성년월일		2021.01.28	